

종이팩업계



최 인 철

종이팩재활용협회 사무국장

포장업계 대부분이 마찬가지로겠지만 지난 2000년에는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. 특히 종이팩 제조업체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유소비가 크게 신장('99년 대비 2~3%)되지 않아 '99년과 비슷하였으며 다만 환율이 안정되어 커다란 수익감소는 없었다고 분석된다. 지난해 가장 큰 사건은 첫째, 정부 당국에서 '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'을 대폭 개정코자 입법예고(2000. 7. 24)하고 의견을 수렴한바, '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'를 도입하였다.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(사용자, 제조자, 수입자)는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만들어 동조합에서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. 물론 이 법률이 원안대로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2003년부터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지만 시행과 동시에 현행 예치금(부과금) 요율이 대폭 인상될 것이므로 종이팩 사용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제조업체는 신규로 부담하여야 될 것이다. 따라서 앞으로는 종이팩 사용업계(유가공업체 및 두유 등 기타가공업체)와 생산(제조)업계가 협의회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고만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. 둘째는 "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"을 개정하여(2000. 10. 2 입법예고) 금년부터 현행 예치금 요율을 대폭 인상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강구이다. 내용을 보면 종이팩에 대한 예치금을 개당 0.3원(250ml이하) 및 0.4원(250ml초과)에서 1원(333%) 및 3원(750%)으로 대폭 인상코자 하는 바, 이 경우 현재 종이팩 사용업계가 부담하는 예치금이 16억여원('99)에서 80억 원이 되어 부담액이 5배정도 늘어나게 되어 해당 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. 이에 협의회에서는 동인상폭을 줄여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업계 실정도 설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. 따라서 종이팩 사용업계 및 제조업체는 관계법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며 또한 일부 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리병포장우유 되살리기 운동에도 종이팩 포장이 유리병보다 환경적인 면에서나 경제적, 위생적, 안전적인 면에서 더 우수하고 대부분의 일반소비자들도 종이팩을 선호하고 있어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. 금년에 있어서 제품 소비증가는 일반적인 경기가 활성화되면 다소 늘어나겠지만 종이팩 관련업계는 합심, 노력해 더 신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믿고 음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제품 만들기에 더욱 더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. ☐